

공문 분류도 AI가 척척 시 교육행정 ‘새 지평’

전북교육청, 공문서 자동 분류·배부 시스템 전국 최초 자체 개발

본청은 이달부터,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은 9월부터 순차적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접수 공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부서 내 접수 공문 AI 자동 배부 시스템인 'K썩배기(K에듀배기) 모 든 문서를 배부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본청은 8월부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K썩배기'는 그동안 문서 담당자가 수신 공문을 일일이 확인해 담당 부서와 업무 담당자를 찾아 배부해야 했던 업무를 AI가 대신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문서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접수 공문을 모니터링해야 했으며, 출장이나 복무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공문 배부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행정업무의 병

목 현상을 해소하고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특히 'K썩배기'는 외부 통신 없이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AI가 직접 구동되는 로컬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됐다. 이에 따라 업무 자료가 외부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클라우드 API 사용료나 월 구독료 없이 자체 자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국어 특화 AI가 적용된 'K썩배기'는 △문서학습 △신규공문 감지 △배부근거 생성 △배부이력 관리 △문서 배부 안내 등의 기능을 갖췄다.

기존 문서등록대장의 배부 이력을 학습한 AI가 새롭게 접수되는 공문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업무분장과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담당자에게 배부한다.

또한 과거 유사 문서의 배부 사례를 바탕으로 문서 내용과 담당 업무 간 유사도를 분석해 배부 근거까지 생성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아동에 따른 업무 공백도 줄일 수 있도록 전임자의 공문 배부 이력을 별도로 학습해 후임자에게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공문이 배부되면 담당자에게 'JB메신저' 쪽지로 배부 정보가 즉시 안내돼 공문 누락이나 확인 지연도 예방할 수 있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K썩배기’는 정보 유출 걱정 없이 자체 자원으로 행정 병목을 뚫어낸 AI 혁신 사례"라며 "문서 담당자의 개입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문을 배부하는 자동화 체계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를 없애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교직원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K썩배기'의 본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AI를 활용한 교육행정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학교와 임실군은 12일 오전 11시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임실군,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 나서

JBNU 지역발전연구원 중심 임실 지역협력거점 운영키로
현안 발굴·정책연구·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정책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임실군(군수 한득수)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대학교와 임실군은 12일 오전 11시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한득수 임실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실군 지역 현안과 정책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연구 과제 공동 기획과 정책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대학교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한 정책자문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학의 전문역량을 지역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는 JBNU 지역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임실군 지역협력거점(임실발전연구소)을 운영해 대학과 임실군 간 지속적인 정책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실발전연구소는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두기보다 JBNU 지역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임실군의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 관련 분야의 전북대학교 교수진과 전문가를 연계해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과제 기획·수행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국가공모사업 및 지역발전사업 대응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에 따라 정책 포럼과 전문가 간담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연 1건 이상의 정책 연구 또는 정책 자문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향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임실발전연구소의 기능 강화와 확대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보유한 연구·인적 자원과 임실군의 지역 정책

수요를 연계해 지역 현안 발굴부터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및 사업 대응까지 이어지는 지역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북대는 JBNU 지역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정책수요를 대학의 전문역량과 연계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고 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전북대학교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서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임실군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현안을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이번 협약은 임실군과 전북대학교의 강점을 연결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임실=진홍영기자

젊은 세대들에게 배우는 ‘거꾸로 멘토링’

전주교육지원청, 자연차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전주교육지원청이 자연차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조직문화를 돌아보고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거꾸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감 채신영)은 12일 평화의전당에서 2026년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성장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자연차 지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조직문화와 갑질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청렴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배 공무원이 자연차 공무원에게 조직문화와 세대 변화에 대

한 시각을 배우는 '거꾸로 멘토링'을 통해 기존의 관행적인 조직문화를 되돌아보고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직급과 세대에 따른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다.

연수에 참여한 한 자연차 지방공무원은 "단순히 갑질을 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넘어 세대 간 이해와 존중, 소통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주 교육행정의 일원으로서 조직 내 존중 문화를 실

현하고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신영 교육감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아니라 작은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세대와 직급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갑질 없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직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상호 존중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교육행정 조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민원 담당자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증가하고 있는 특이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2일 본청 창조나래 4회의실에서 2026년 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정보공개 및 민원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특이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고, 민원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자가 따라야 할 대응 절차와 요령, 관련 법적 지침 등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직 서비스와 민원에 대한 이해 ▲민원 응대 및 악성·특이 민원 대응 방법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 ▲관련 법적 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자들이 단순한 민원 응대 기술을 넘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업무 수행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오상근 기자

202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지원 전략 안내

전북교육청, 22일 입시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시전형 지원 전략을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오는 22일 오후 1시 20분부터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7 대입 수시전형 지원 전략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진학 정보 격차를 줄이고 수험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학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5 교육과정 체제의 마지막 대입인 데다 무전공학과 확대, 지역의 사선발전형 도입 등 입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는 모두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이자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자료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조석진 완산고 교사가 강사로 나서 전북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거점국립대와 교육대학의 수시 지원 전략을 집중 분석한다.

이어 2부에서는 대교협 상담교사인 채무철 경기 분당아람고 교사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전형 지

원 전략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지역 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대학까지 변화하는 입시 환경과 대학별 전형 특성을 폭넓게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참석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수시 지원 전략 자료집 2종을 비롯해 모두 3종의 진학 자료를 제공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설명회 전체 내용을 촬영·편집해 전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전북교육 대입정보 TV'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근이 중등교육과장은 "대입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수험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과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수험생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군사학과 1학년 37명, 장교 선발시험 전원 합격

12년 연속 100% 합격 기록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1학년 재학생 37명 전원이 2026년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군사학과 1학년 학생 37명 전원이 올해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하며 12년 연속 100% 합격 기록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격자들은 입학 후 한 학기 만에 필기시험을 비롯해 체력검정과 면접 등 장교 선발 전 과정을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합격자 37명 가운데 30명은 2개 이상의 군 장학생 선발시험에 중복 합격했다. 정량훈·김현진·신예준 학생은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선발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석대 군사학과는 학생들이 입학과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1학년 재학생 37명 전원이 2026년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동시에 장교 선발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필기시험 대비 교육은 물론 체력 향상 프로그램과 실전 중심의 면접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장교 선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군사학과는 2015년 학과 설립 이후 12년

연속 장교 선발시험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명의 졸업생이 장교로 임관하면서 군 간부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우석대 군사학과 학생들은 국방부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오상근 기자

여름철, 지역 어르신께 재능 나눔

전주기전대 뷰티디자인과,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진행

전주기전대학 뷰티디자인과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철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 뷰티디자인과는 지난 11일 다운재활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평균 연령 80대 이상의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일상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 기술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과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 익힌 미용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동시에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실무 경험도 쌓았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주기전대학 뷰



티디자인과 2학년 고영애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미용 기술로 어르신들에게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기분 좋은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공을 활용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